

# 기초교육원에 바란다

## 영 어 강 의



김우주  
(인문대학 02)

### 다양한 주제의 영어 강의 증설되길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대체로 다른 학문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금 대학에서 영어가 그 자체의 거대한 분과 학문처럼 돼 버렸고,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를 강의하고 있다. 그러나 도구 교과로서의 영어는 영어 그 자체가 아니라 영어를 매개로 자기 관심분야를 연구할 때, 특히 학문의 원류가 영어로서 이루어진 것일 경우일 때 쓸모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개설된 강좌 중에는 영어로 된 과목을 정말 찾기 힘들고, 그나마 개설돼 있는 영어 강의 중에는 “Korean~” 류의 외국인 학생을 위한 과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어 강의를 듣고 싶은 것은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학계에 근접하고 싶은 마음과, 번역으로 만들어지는 미묘한 차이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함인데, 한국을 주제로 한 과목을 굳이 영어로 번역해 진행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됐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국내 재학생들을 위한 영어 강의가 많이 개설됐으면 좋겠고, 특히 외국인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많아졌으면 한다. 무엇보다 영어를 활용할 때 더 의미가 분명해지고, 더 넓은 지평에 접할 수 있는 과목에 영어강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경일  
(농경제사회학부 01)

### 멀티미디어 강의실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

강의실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의사소통하며 대부분의 대학교육이 이루어지는 일차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학교 당국은 좀더 나은 강의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 강의동이라 불리는 83동과 43-1동은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멀티미디어 강의실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강의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의 강의실 배정은 원만한 강의진행을 가로막는다. 필자의 경우 판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멀티미디어 강의실에서 듣고 있다. 넓은 강의공간에 비해 작은 칠판이 구비된 멀티미디어 강의실에서는 선생님의 판서를 알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선생님이 판서 내용을 자주 지우며 강의를 진행하여 수업의 맥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멀티미디어 강의실의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선생님의 경우 수업 준비하느라 정작 수업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강의실을 증설하고 새로운 강의 집기를 들여놓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강의실과 집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강인원뿐 아니라 강의형태를 고려하여 강의실을 배정하고 강의실에 기기 사용에 관한 간단한 매뉴얼을 마련해 놓는 작은 배려가 아쉽다. (이경일)

## 핵심교양



류혜린  
(작곡과 이론전공 02)

### 일반 교양과 다른 핵심 교양으로 도입 취지 살려야

영역 별 핵심교양 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첫 세대인 02학번이다. 입학할 때 받은 이수 기준 및 내역을 보면, 3학년까지 각 영역 별 핵심교양을 이수하라는 규정이 나와 있다. 그런데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마다 듣고 싶은 과목에 인원 초과를 이유로 들어가지 못해 4학년 2학기인 지금까지도 핵심교양을 듣고 있다.

02학번 이후에는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핵심교양을 필수로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음에도 핵심교양 강좌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수강신청기간에는 똑같이 필수 과목임에도 고학년이 될 수록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어렵사리 수강신청을 해서 수업에 들어가면, 일반교양 과목과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할 만큼 200명 가까운 수강생이 모여 있는 대형 강의인 경우도 종종 있었다.

글쓰기와 독서 지도를 강화하고, 심층적인 토론 수업을 장려한다는 핵심교양의 도입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핵심교양이 운영되는 모습은 강의실에서나 행정적으로나 체계가 많이 흐트러진 것 같다. 적어도 핵심 교양 수업에 대형 강의를 없었으면 한다. 그리고 필수로 수강할 학생들에게 신청 기회를 고르게 줬으면 한다.



김강민  
(사회과학대학 05)

### 학생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핵심 교양 수업을 원한다

핵심교양은 대학생에서 꼭 필요한 교양을 공부하는 수업이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대학 공부를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핵심교양 수업이 그와 같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핵심교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업이 대형 강의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현재의 대형 강의체제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업이 잘 전달되는지, 학생들이 수업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도입한 강의평가제는 학내 언론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일보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학생들의 핵심교양 공부시간은 일반교양의 공부시간과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핵심교양 수업이 일반교양 수업과 동기부여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핵심교양은 충실한 수업을 위해 많은 양의 과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떤 핵심교양은 전공에 비교할 만큼 힘들다는 평가를 듣기도 한다. 하지만 나와 주변 학우들의 경우에는 이런 점들로부터 대학에서 필요한 작문 능력을 기르는데 그리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학생들의 수에 비해 수업 조교의 수는 턱없이 적어서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핵심교양에서의 과제가 수강생 자신이 쓴 글을 반성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물론 대학에서의 공부는 주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더 질 좋은 수업을 제공한다면 학생들에게 보다 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현재의 느슨한 교양 수업의 모습은 아쉬움이 남는다.